

經典解釋과 漢語文字學(2)*

— 《懸吐完譯 孟子集註》를 중심으로 —

韓 延 錫**

<目次>

| | |
|-----------------------------|---------------------------|
| I. 序言 | 1. 한자의 形音義 제시에서의 某同과 某通 |
| II. 字典과 漢語文字學 | 2. 문장 중에 제시된 某同과 某通 |
| 1. 字典의 제작과 활용 | 3. 《懸吐完譯 孟子集註》의 義項 적용과 해석 |
| 2. 中國字典의 異體字와 通假字 | IV. 結語 |
| 3. 典籍의 해석과 漢語文字學 | |
| III. 《懸吐完譯 孟子集註》의 通假와 義項 적용 | |

I. 序論

儒學을 국시로 삼은 朝鮮은 유가 경전의 敎學이나 저술에 상당한 열의를 보였다. 경전의 교학이나 연구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漢語文字學이다. 하지만 조선의 많은 학자들 중 漢語文字學(訓詁學)에 정통한 이는 별로 없다. 丁若鏞 정도가 경전 해석에 자신만의 독특한 안목을 드러냈으나 역

* 본 논문은, 동일한 주제로 근역한문학회의 <한문학논집> 제45집(2016.10.31)에 투고하였기 때문에, ‘經典解釋과 漢語文字學(2)’라 하였다. <한문학논집> 제45집에서는 ‘然, 豈, 獨’의 ‘그러나, 어찌, 홀로’로의 습관적 해석과 ‘市朝, 辭命, 昌言, 塵而不征’의 塵, 布泉, 不毛’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을 漢語文字學的으로 고찰하였다.

** 公州大學校 漢文教育科 副教授, E-mail: hanyoun4860@hanmail.net

시 정통 漢語文字學을 공부하거나 응용한 것은 아니다.

조선 유학의 교학과 연구는 대체로 중국 유학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듯하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거나 漢語文字學을 활용한 독창적인 해석을 내놓은 것은 미미하다. 이렇게 국가의 많은 인재들이 유학에 종사하고도 중국과 다른 새로운 학설, 새로운 시야가 미진한 것은 小學(漢語文字學)을 등한시 한 요인 크다고 생각된다.

이런 조선시대의 학풍은 현재 우리 漢文學系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듯하다. 한문학계통의 학과가 창설된 지 어언 40년이 다 되었지만,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극소수이고, 漢語文字學 방면의 강좌를 제대로 개설한 대학이 많지 않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전통 학문을 하였던, 新學問을 하였던 漢語文字學의 수용 없는 경전연구와 해석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필자가 전적해석에 漢語文字學的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교학과정에서의 경험 때문이다. 《論語·憲問》 “豈若匹夫匹婦之爲諒也, 自經於溝瀆而莫之知也(어찌匹夫, 匹婦들이 조그만 信義를 위해 스스로 도랑에서 목매죽어 알아주는 이 없는 것 같이 하겠는가.)”의 朱子 注에 ‘經은 縊也’라 하였다. 수강생 중 한명이 논어를 많이 읽었는데도 왜 經을 縊이라고 하는지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해주지 않아 늘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하였다. 縊은 上古音이 錫韻, 影紐이고, 經은 耕韻, 見紐로, 두 字는 旁對轉, 鄰紐의 近音이다.¹⁾ 즉, 經은 縊의 假借字로 쓰인 것이다. 이렇게 전적의 해석에 漢語文字學의 응용은 필요하다.

- 1) ‘목을 매다’로 쓰인 용례는 전고에 자주 보인다. 《荀子·仲尼》 “志不免乎姦心, 行不免乎姦道, 而求有君子聖人之名, 辟之是猶伏而啗天, 救經而引其足也.(뜻은 간악한 마음을 면하지 못하고 행동은 간악한 도를 면하지 못하고 군자와 성인의 이름을 추구한다면 이는 비유컨대 엎드려서 하늘을 보고, 목매던 사람을 구하는데 다리를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의 楊倞 注에 “經은 ‘목을 매다’이다.(經, 縊也.)”라 하였고, 《史記·田單列傳》 “王蠋遂經其頸於樹枝, 自奮絕脰而死.(王蠋이 스스로 분개하여 드디어 나뭇가지에 목을 묶고 목을 절단 내어 죽었다.)”의 司馬貞 索隱에 “經은 매달다와 같다.(經猶繫也.)”라 하였다.

본고는 전적 해석에 선구적 역할을 한 成百曉의 《懸吐完譯 孟子集註》에 보이는 訓詁현상들을 漢語文字學的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당연히 성백효의 공헌을 폄하 하거나, 오역을 지적하고자 함이 아니다. 漢語文字學的 시각에서 합리적 접근이 어떤 것인지 제시하고, 차후 한문학계의 전적해석에 漢語文字學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한다. 텍스트는 成百曉의 《懸吐完譯 孟子集註》이다. 범위는 梁惠王章句에서 公孫丑章句까지를 주 대상으로 삼지만 경우에 따라 벗어나기도 한다. 주 검토 대상은 해석의 義項 적용과 通假 문제이다. 본문 혹은 하단 한자의 形音義 제시에 보이는 某同과 某通을 검토하고 또, ‘又 縮 甚’ 등의 義項적용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字典과 漢語文字學

1. 字典의 제작과 활용

자전은 漢語文字學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자전은 漢語文字學(訓詁學)의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제작되고, 제작된 자전은 다시 漢語文字學의 연구 대상이 된다. 자전은 전체적으로 어떤 글자를, 어떤 원칙에 의해 배열하고, 形音義는 어떤 원칙에 의해 밝히며, 한자가 갖고 있는 많은 의항은 어떤 순서로 배열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즉, 한자의 形音義를 어떤 원칙에 의해, 무엇을, 어디까지, 어떤 순서에 의해, 어떻게 밝힐 것인가를 고민한다. 아울러 字形은 무엇을 채택하고, 어떤 字體까지 제시할 것인가, 異體字와 古今字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通假字는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독음은 무엇을 기준으로 몇 개를 밝힐 것인가 등에 대해 漢語文字學(주로 訓詁學)은 원칙을 제공한다.

漢語文字學(訓詁學), 字典, 해석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자전에 제시된 義項은 일반적으로 本義 引伸義 假借義 순으로 배열한다. 인신의 역시 인신된 순서대로 제시함이 원칙이다. 이는 本義나, 혹은 引伸義 가운데 맨

처음 引伸된 義項을 認知하면, 이로부터 轉移된 나머지 의항들을 유추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전을 활용한 한문 해석 역시 이런 한어문자학(훈고학)적 의도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한자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1字 1形 1音 1義가 원칙 이었다. 사용하는 과정 중 이들이 불어나 多形, 多音, 多義가 되었는데, 특히 義는 形과 音보다 더 다양화되어 어떤 글자는 60개 이상의 義項을 갖고 있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의항들이 존재해도, 전적을 해석할 때, 이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즉, 전적 해석에 자전의 의항이 문맥에 딱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때 해석자는 語境에 따라 적당한 의항을 대입하고, 그 문장에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응용 해석하는데, 이를 훈고학에서는 隨文釋義라 한다.²⁾ 이상과 같은 현상들은 역으로 자전이

2) 辟은 중국 자전에 독음이 서로 다르다고 구분해놓은 것이 5개이고, 5개의 독음 아래 모두 63개의 의항이 달렸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辟(pi) : 반절은 《廣韻》 芳辟切, 房益切에 義項은 ‘法(法度)’에서 ‘通霽’까지 32개가 달렸다.

② 辟(bi) : 반절은 《廣韻》 必益切에 의항은 天子에서 ‘通卑’까지 27개가 달렸다.

③ 辟(mi) : 반절은 《集韻》 母婢切에 의항은 停止의 ‘通弭’ 1개가 달렸다.

④ 辟(bò) : 반절은 《集韻》 博厄切에 의항은 分開와 分別(區別)의 ‘通擊’까지 2개가 달렸다.

⑤ 辟(pi) : 반절은 《集韻》 賔彌切에 의항은 ‘식물장식’의 ‘通紕’가 달렸다.

63개의 의항 중 通假義가 상당히 많다. ③, ④, ⑤의 通假외에도 ①, ②에도 상당히 많다. ①은 32개의 의항 중 ‘通擗(拍胸) 通譬(譬喻) 通譬(通曉) 通譬通繫 通霽(辟歷)’ 등 6개가, ②는 27개의 의항 중 14번에서 27번째 의항까지(通壁 通棹 通壁(牆壁) 通壁(壁壘) 通臂(手臂) 通臂(臂狀物) 通襲(襲積) 通襲(重夏) 通襲(折疊) 通襲(閉合) 通襲(逢迎) 通壁(辟雍、辟離) 通弼(輔佐) 通卑(辟耳)) 14개가 通假義이다.

辟은 서로 다른 반절에 의한 독음 5개 외에도 ①과 ②의 경우, 동일한 독음이었던 것들이, 후에 다시 독음이 분화된 것들이 많다. 예컨대 ①의 반절의 독음은 ‘벽’이다. 하지만 ①의 통가자 중에는 ‘비(譬)’로 읽는 것도 있다. ②의 14개의 통가자는 ‘벽’ 이외에도, ‘비(棹)’ ‘폐(襲)’ ‘필(弼)’로 읽는 것도 있다. 《漢語大詞典》은 최소 벽, 비, 미, 폐, 필 등 5개의 독음을 제시하였다. 통가 현상에 의한 훈과 음을 제시할 때 그 원칙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우리자전도 고민할 때가 왔다. 예컨대 우리 자전에 按을 ‘막을 알’로 표시했는데, 이것이 적절

나 교과서 혹은 모종의 解釋書를 낼 때, 隨文釋義에 의해 도출된 뜻은 한자의 音訓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2. 中國字典의 異體字와 通假字

중국의 《漢語大詞典》과 《漢語大字典》의 異體字, 通假字에 대한 표기법을 살펴본다. 《漢語大詞典》은 凡例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正字와 異體字는 각각 모두 표시한다. 그 원칙은 정자와 이체자는 각각 單字 조목으로 분별하여 立目한다.³⁾ 어떤 글자의 異體字에 대해서는 독음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某는 同某로만 적는다.⁴⁾

‘亦作’과 ‘同’은 異體字를 표시한다. 이 경우 甲인 글자의 이체자는 ‘亦作某(乙)’로, ‘乙’인 글자의 이체자는 ‘同某’로 적는다.⁵⁾

異體字는 각각 單字 조목으로 立目하되, 立目된 글자(표제자)에만 독음을 표시하고 이 글자와 이체관계인 글자는 독음을 생략하고 同某로만 적는다고 한다. 아울러 주가 되는 이체자는 ‘同某(甲)’로, 부가 되는 이체자는 ‘亦作某(乙)’로 표시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往, 往, 王’의 경우 “往① [wǎng] 同‘往’ 往① [wǎng]《廣韻》於兩切. 亦作‘往’.” 王③ [wǎng]《字彙》羽枉切. 通‘往.’”으로 표시하였다. 이는 往과 往은 이체자관계인데, 往이 주가 되기 때문에, 표제자 ‘往’ 아래에 ‘亦作往’이라 하고, 표제자 ‘往’ 아래에는 ‘同往’으로 표시한 것이다.

《漢語大字典》도 “多義字는 일반적으로 本義、引伸義、通假義의 순서

한지 논의할 시점이 됐다.

- 3)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編纂處,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86, 제1책, 8쪽.
- 4)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編纂處,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86, 제1책, 9쪽.
- 5)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編纂處,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86, 제1책, 10쪽.

로 배열한다.”고 하고, 이체자와 통가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異體字 관계는 이체자의 아래에 서로 다른 상황에 근거하여 ‘同某’ ‘後作某’ ‘也作某’로 표시한다. 通假義項은 ‘通某’로 표시한다. 뒤에 나온 同音代替字는 ‘用同某’로 써서 표시한다.⁶⁾

異體字 관계는 ‘同某(後作某, 也作某)’로, 通假義項은 ‘通某’로 표시한다고 한다. 이들 두 자전은 ‘同’은 異體字 관계를, ‘通’은 통가를 나타낸다고 한다. 통가 관계는 위 ‘往’의 예에서 보듯, 표제자 ‘往’에 ‘王的被通假字’라 하고, 표제자 ‘王’에는 ‘通往’이라 하였다. 즉, ‘通某’는 통가관계를 나타낸다.⁷⁾ 통가 통시는 표제자 바로 아래에만 표시하는 게 아니다. 본의와 인신의 뜻을 다 제시하고 맨 나중에 많은 통가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컨대 《漢語大字典》과 《漢語大詞典》은 ‘猶’자조에서 本義인 ‘짐승이름’외에도 ‘通猷’, ‘通訖’, ‘通由’, ‘通欲’, ‘通猶’, ‘通搖’처럼 ‘通某’의 많은 통가관계를 표시 하였다.⁸⁾

3. 典籍의 해석과 漢語文字學

1) 한문 해석 중의 義項 적용문제

전적을 해석함에 일부 글자들, 특히 익숙한 글자들은 습관적으로 代表訓을 적용하기도 한다. 또, 이 代表訓이 문맥에 맞지 않으면 해석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다음 豈의 용법을 보자.

-
- 6) 漢語大字典編纂委員會, 《漢語大字典》, 四川辭書出版社 湖北辭書出版社, 1993, 4쪽.
 7)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編纂處,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86, 제1책, 10쪽. 通假字는 ‘通某’로 표시한다고 하였다.
 8) 고서 주석에 가차관계를 나타내는 ‘通’을 ‘同’으로 쓴 경우도 있다. 예컨대 《公羊傳·莊公四年》 “紀侯之不誅, 至今有紀者, 猶無明天子也”의 惠棟의 古義에 “猶, 由同”이라 하여, 통가관계를 ‘同’으로 표시하였다.

- ㉑ 〈許生傳〉：許生問老篙師曰 海外豈有空島 可以居自乎(허생은 늙은 사공을 만나 묻길, ‘바다 밖에 혹시 사람이 살 만한 빈 섬이 있던가?)
- ㉒ 《二程遺書》：曰，順天行道者天民也，順天為政者天吏也……豈不為天民天吏，如文王伊尹是也。(이르길, 하늘에 순응하여 도를 행하는 자를 천민이라 하고, 하늘에 순종하여 정치를 행하는 자를 천리라 한다. …… 그 천민 천리가 되지 못한 자는 문왕과 이윤 같은 사람들이 그들일 것이다.)⁹⁾

우리는 습관적으로 豈를 ‘어찌’로 해석한다. 위 두 문장은, 직역을 한 것이지만, 豈를 ‘어찌’로 해석하면 문의가 통하지 않는다. 이곳의 豈는 추측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문의가 통할 것이다.(其의 통가)

2) 隨文釋義와 義項의 적용과 표시

자전에 제시된 의항은 서로 다른 개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만을 제시한다. 屈原의 離騷 “恐美人之迟暮(미인(회왕)이 늙어 감을 걱정 한다네.)”의 美人은 ‘懷王’을 나타낸다. 하지만 자전의 ‘美人’ 조에는 ‘회왕’이라는 義項이 없다. 왜냐하면 이는 특정한 語境에서의 意義로 보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단, 자전에 ‘회왕’이라는 뜻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위와 같은 語境에서는 隨文釋義하여 ‘회왕’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굴원의 漁父辭 “安能以皓皓之白，而蒙世俗之塵埃乎。(어찌 희고 흰 깨끗한 몸에 세속의 먼지(더러움)을 뒤집어쓸 수 있으리오.)”의 ‘白’은 ‘깨끗한 몸’이란 뜻이다. 자전에 白의 ‘깨끗한 몸’이란 의항은 없다. 하지만 새로 자전을 제작할 때 ‘白’에 ‘깨끗할 몸’이란 의항을 달아줄 수는 없다. 이렇게 서로 다른 語境에 隨文釋義한 뜻들은 자전이나 교과서, 전적의 해설본에 音訓으로 제시하면 안 된다.

9) (宋)程頤, 程灝 撰, 《二程全書·二程遺書》(3책)卷十八(四部備要, 子部), 臺灣台北: 中華書局, 中華民國65年(1976년)라 하여, 豈를 추측을 나타내는 ‘其’로 썼다.

Ⅲ. 《懸吐完譯 孟子集註》의 通假와 義項 적용

1. 한자의 形音義 제시에서의 某同과 某通

成百曉는 문장에 쓰인 한자의 形音義를 본문 아래에 제시하며 ‘某同’ ‘某通’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同’과 ‘通’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本文의 誤脫字, 假借字, 衍文 등은 다음 符號를 使用하였다.”라 하고, “假借字의 例: 今之樂由(猶)古之樂也”¹⁰⁾라는 기록으로 보아 ‘某同’은 이체자를, ‘某通’은 통가 관계를 나타내는 듯하다.¹¹⁾ 위 예시는 가차 관계의 경우 본문 문장 속에 괄호로 표시한다는 것으로, 본문 하단부의 形音義 제시에도 동일할 것으로 이해된다. 形音義 제시에 ‘同’과 ‘通’이 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某同으로 표기된 것

역자가 제시한 한자의 形音義에 ‘某同’으로 표시한 것은(같은 글자를 반복한 것 포함) 다음과 같다.(‘某同’ ‘某通’은 역주본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驕 : 땅이름 추(鄰同) 從 : 세로 종(縱同) 衡 : 가로 횡(橫同) 彊 : 강할 강(強同) 粥 : 팔 욱(鬻同) 塗 : 길 도(途同) 卒 : 갑자기 졸(猝同) 渤 : 일어날 발(勃同) 伯 : 霸同 由 : 갈을 유(猶同) 時 : 이 시(是同) 莒 : 무리 려(旅同) 衡 : 가로 횡(橫同) 邪 : 땅이름 야(琊同) 招 : 풍류이름 소(韶同) 笱 : 가할 가(笱同) 邇 : 땅이름 빈(邠同) 旄 : 늙은이 모(耄同) 九 : 규합할 규(糾同) 衡 : 가로 횡(橫同) 芒 : 아득할 망(茫同) 內 : 들일 납(納同) 然 : 불탈 연(燃

10) 成百曉, 《懸吐完譯 孟子集註》, 傳統文化硏究會, 2000, 7쪽.

11) 단, 위처럼 본문의 가차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였지만, ‘某同’ ‘某通’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아마 ‘同’ 혹은 ‘通’이란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뜻을 참고 하면 중국사전의 정의와 같지 않을까 추정한다.

同) 由 : 녀넉할 유(悠同) 舍 : 버릴 사(捨同) 爾 : 땅이름 빈(邢同) 賈 : 값가(價同) 員 : 둥글 원(圓同) 蓄 : 재앙 재(災同) 毳 : 물 구(驅同) 畜 : 쌓을 축(蓄同) 共 : 공손 공(恭同) 介 : 지푸라기 개(芥同) 兒 : 성 예(倪同) 底 : 숫돌지(砥同) 展 : 구를 전(輓同) 信 : 펼 신(伸同) 蜚 : 날 비(飛同) 曾 : 더할 증(增同) 衡 : 걸릴 횡(橫同) 拂 : 도울 필(弼同) 勅 : 길 인(勿同) 塗 : 길도(塗, 途同)

위 ‘伯 : 霸同’이라 밝힌 것은 후대 전적에서 伯이 ‘으뜸’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伯’을 직접 ‘으뜸 백(패)’으로 제시하지 않고 ‘霸同’이라 한 것 같다. 같은 페이지 같은 곳에 ‘霸’는 ‘으뜸 패’라 하였다. ‘由’는 ‘같을 유(猶同)’로 표기 하였는데, ‘같다’란 의미로 새기고 있는 ‘醜’는 ‘猶同’으로 표기하지 않고 ‘같을 추¹²⁾’라 하였다. 아울러 ‘由’가 ‘같다’란 뜻이 아닌 ‘由 : 오히려 유’ ‘由 : 행할 유’¹³⁾에는 모두 ‘猶同’이란 표시가 없다. 아마 ‘由’가 ‘猶’와 ‘같다’란 義에서 자주 통가되고 ‘행하다, 오히려’ 등에서는 비교적 드물게 통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사실 위에 제시된 ‘某同’은 한어문자학적 관점에서는 이체자 관계가 아닌, 대부분 통가관계이다. 古今字 관계는 從과 縱, ‘內와 納’ ‘然과 燃’ ‘舍와 捨’ ‘曾과 增’ ‘共과 恭’ 정도이고, 異體字 관계는 ‘彊과 強’ ‘爾과 邢’ ‘毳와 驅’ 정도 밖에 없다.

2) 某通으로 표기된 것

王 : 왕성할 왕(旺通) 爾 : 가까울 이(邇通) 而 : 如通 攸 : 한가할 유(悠通)
 內 : 넣을 납(納通) 稅 : 통脫 父 : 이름 보(甫通) 旂 : 깃발 기(旗通) 干 : 대
 막대 간(竿通) 關 : 활당길 만(彎通) 庸 : 쓸 용(用通) 厭 : 눌릴 압(壓通)

‘某通’으로 표기된 것은 모두 11개 밖에 보이지 않는다. ‘厭 : 눌릴 압(壓

12) 成百曉, 《懸吐完譯 孟子集註》, 傳統文化硏究會, 2000, 116쪽.

13) 成百曉, 《懸吐完譯 孟子集註》, 傳統文化硏究會, 2000, 133, 172쪽.

通) ‘内: 넣을 납(納通)’은古今字 관계이다. ‘旂: 깃발 기(旗通)’는異體字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通假관계이다. 稅와 脫은聲符가 ‘兌’로同源字이다. 脫은上古音이 月韻 透紐 陰平聲이고 中古音은 末韻 透紐 入聲이며 반절은 他括切이다. 稅(說)는 상고음이 月韻 書紐 去聲이고 중고음은 祭韻 書紐 去聲이며 반절은 舒銳切이다.¹⁴⁾ 脫과 稅는 疊韻 準旁紐의 近音으로 가차 가능하다.

성백효의 某同과 某通은 분명 저자의 의도적 구분이다. 저자가 通과 同을 어떤 기준에, 무엇을 나타낸다고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의도적 구분임은 틀림없다. 그런데 위에 제시된 ‘通과 同’의 관계는 이체자관계인지, 고금자관계인지, 통가자관계인지 漢語文字學으로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아래 某同과 某通의 文例 몇 개를 살펴본다.

2. 문장 중에 제시된 某同과 某通

1) 某同의 경우

① 信 伸同

告子上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孟子曰 今有無名之指屈而不信(伸) 非疾痛苦事也 如有能信之者 則不遠秦楚之路 爲指之不若人也(孟子께서 말씀하였다. “지금에 無名指가 굽혀져 펴지지 않는 것이 아프거나 일에 해가 되지 않건마는, 만일 이것을 펴주는 자가 있으면 秦楚의 길을 멀다 여기지 않고 찾아가니, 이것은 손가락이 남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위 문장 ‘信(伸)’은 信이 伸의 가차라는 것이다. 信은 《廣韻》에 반절을 ‘息晉切’로, 《集韻》에는 ‘升人切’이라 하였다. 《한어대사전》은 ‘亦作 忝’이라 하여 ‘忝’가 異體字이고, ‘升人切(shēn)’로 읽을 때는 ‘伸’의 통가

14) 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6, 34, 146쪽.

자라고하여 ‘通伸’이라 표기하였다. 그 용례로 《易·繫辭下》의 “尺蠖之屈, 以求信也(자 벌레가 몸을 굽히는 것은 펴기 위한 것이다.)”와, 위 《孟子·告子上》의 문장을 예로 들었다. 위 문장의 信은 분명 伸의 가차자이다. 성백효 자신도 범례에서 본문 괄호 표시는 가차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하지만 形音義 표시에서는 ‘信: 펼 신(伸同)’이라 표기하여, ‘某同’과 ‘某通’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② 由 猶同

梁惠王章句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A. 如有不嗜殺人者 則天下之民 皆引領而望之矣 誠如是也 民歸之 由(猶)水之就下 沛然 誰能禦之(“만일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天下의 백성들이 모두 목을 늘이고 바라볼 것입니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백성들이 그에게 돌아감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을 것이니, 沛然함을 누가 능히 막겠습니까?”라 하였다.)









B. 曰 王之好樂 甚 則齊其庶幾乎 今之樂 由(猶)古之樂也(孟子께서 말씀 하였다. “王께서 音樂을 좋아하심이 심하시면 齊나라는 그 거의 다스러질 것입니다. 지금 音樂이 옛 音樂과 같습니다.”)¹⁵⁾

A, B 모두 본문에는 ‘由(猶)’로 표시하였다. 성백효의 범례 제시에 의하면 두 글자는 통가관계를 나타낸다. 하지만 B 문장의 形·音·義 제시에서는 ‘由: 같을 유(猶同)’라 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성백효의 본문의 ‘由(猶)’ 표시와 形音義 제시에 사용한 ‘某同’은 동일한 관계를 나타낸다. 즉, 가차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인 자전에서 표시하는 異體字 관계가 아니다. 由와 猶의 자원을 통해 이들이 혹 이체관계가 가능하지 살펴본다.

15) 成百曉, 《懸吐完譯 孟子集註》, 傳統文化硏究會, 2000, A. 30쪽, B. 44쪽.

④ 由의 자원






由의 본의는 ‘투구’이다. 갑골문은 ‘  

는 예전에는 무슨 자인지 알지 못했다. 나는 이를 ‘由’자로 판독한다. 이는 혹 로 쓰기도 하는데 투구의 모양을 그린 것으로 金文 ‘小子鼎’의 胄자를 로 쓴 것과 정확히 합치된다.  혹은 로 쓴 것은 의 생략형이다. 金文 ‘白晨鼎’에서는 胄를 으로 쓰기도 하였다. 설문에 由가 편방으로 쓰인 글자는 있지만 정작 由자는 나오지 않아¹⁶⁾ 후인들이 이에 대해 언급한 사람이 많다. 說文繫傳에는 “李陽冰이 이르길 곧 由자이다.”라 하였는데, 내 생각에는 옛날부터 由자가 있었지만 살피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중략) 古文 由와 由 2자의 형체는 매우 비슷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같은 글자라고 하면 안 된다. 지금 갑골문이나 金文을 보면 由는 곧 胄자이다. (胄는 사람이 투구를 쓴 모습이다.) 唐宋 이래로 분분하게 시비가 있었는데 마땅히 이로써 중지부를 찍어야 한다.(天壤閣甲骨文存考釋 49쪽-50쪽)¹⁷⁾

由는 지금까지 ‘古, 由, 甲의 倒文, 繇, 柶, 缶’ 등으로 誤讀하기도 하였지만 투구를 그린 것이라고 한다. 왕국유의 이러한 주장은 학계의 대체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⑤ 猶의 자원

猶는 《說文·犬部》에 “猶(羆)는 원숭이 종류이다. 犬이 뜻을 猷가 소리를 나타낸다. 한편으로는 隴西지방에서는 강아지를 猷라 한다. 반절은 ‘以周切(유)’이다.(猶(羆), 獮屬. 从犬猷聲. 一曰, 隴西謂犬爲猷. 以周切)”라

16) 《說文》에 ‘    

17) 于省吾 主編, 《甲骨文文字詁林》(全四册), 北京: 中華書局, 1996, 714쪽.

하여, 본의가 원숭이과의 짐승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본의가 由는 투구, 猶는 원숭이로, 둘 다 本義나 引伸義에서 ‘같다.’라는 뜻은 없다. 한어대사전은 由는 ‘通猶’라 하였다. 口語의 ‘같다’라는 단어와 이들의 독음이 같기 때문에 ‘같다’라는 뜻으로 통가된 것으로, 由와 猶는 통가관계이지 異體字 관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同猶’ 보다는 ‘通猶’로 표기했어야 일반적인 한어문자학의 정의와 부합된다.¹⁸⁾

由와 猶는 上古音이 幽韻 余紐 陽平聲이고, 中古音이 尤韻 余紐 平聲으로 상고에서 중고까지 同音이었다.¹⁹⁾ 두 글자의 자원과 字音을 고려하면 통가관계가 확실하다.

③ 伯 霸同

‘梁惠王章句 上’의 주석에 伯을 ‘霸同’이라 한 곳이 있다.




道 言也 董子曰 仲尼之門 五尺童子 羞稱五伯 爲其先詐力而後仁義也 亦此意也 以 已通用 無已 必欲言之而不止也 王 謂王天下之道(道는 말함이다. 董子が 말하기를 “仲尼의 門下에는 五尺 童子들도 五伯(패)를 칭하기를 부끄러워하였으니, 이는 그 속임수와 무력을 앞세우고 仁義를 뒤로 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는데, 이 또한 그러한 뜻이다. 이는 已와 통용이니, 無已는 반드시 그것을 말하고자 하여 그만두지 않는 것이다. 王은 天下에 왕 노릇 하는 道를 말한다.)²⁰⁾

위 문장의 形音義 제시에 성백효는 같은 곳에서 ‘霸 : 으뜸 패’ ‘伯 : 霸同’이라 하였다. 伯은 霸와 같다고 하였는데, 일견 霸의 본의가 으뜸이고 伯은 霸의 가차자로 쓰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정반대이다.



18) 성백효의 본문 가차표시(글자 뒤에 괄호)와 본문 하단 한자의 形音義 제시에 서의 표기 某同이 자전에서의 보편적 표기와는 다르다.

19) 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6, 179쪽. 由는 상고음이 幽韻 定紐 去聲이고, 중고음이 宥韻 澄紐 去聲으로 由와는 疊韻 準旁紐의 近音이다.(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6, 173쪽.)

20) 成百曉, 《懸吐完譯 孟子集註》, 傳統文化硏究會, 2000, 31쪽.

伯의 初文은 白이다. 白은 갑골문에 ‘  

’으로 썼는데,²¹⁾ 사람의 머리 모양을 그린 것이다. 지금까지 白에 대해 쌀 모양, 손톱 모양, 새벽 동틀 무렵의 빛 등으로 해석이 분분했는데, 白은 사람의 머리 모양을 그린 것으로 본의는 ‘머리’이고, ‘머리’로부터 우두머리 어른 등의 인신의가 나왔다. ‘白, 𠂇, 首’는 같은 근원에서 나온 것으로 모두 사람의 머리 모양을 그린 것이다.

‘白’은 정면에서, ‘首’는 측면에서 그린 것으로 ‘ 

’처럼 썼다. 《釋名》에 “頭는 우뚝함이다. 몸의 높은 곳에서 홀로 우뚝함을 나타낸다.(頭, 獨也, 於體高而獨也.)”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白, 頭, 首’는 인신하여 존장이란 뜻이 있다. 伯은 《說文·人部》에서 ‘長’이라 하였는데, 자형은 白자의 孳乳이고, 뜻(長)은 白자에서 인신된 것이다. 金文이나 갑골문에서 ‘으뜸, 우두머리’를 나타내는 ‘伯長’의 伯은 모두 白으로 썼다. 이는 白이 伯의 初形이고, 伯은 白의 孳乳字라는 것을 말해 준다. ‘伯長’은 白의 引伸義 이다.²²⁾ 黑白의 白은 본의와 전혀 관계없는 假借義 이다.²³⁾

갑골문에 兒자가 있다. 소전은 兒로 썼고, 兒의 或體는 𠂇로, 籀文은 𠂇로 썼다. 설문에 “兒은 용모이다. 人과 白으로 이루어졌는데, 사람의 얼굴 모양을 그린 것이다.(兒 頌儀也, 從人白, 象人面形)”라 하였다. 《段玉裁注》는 “兒의 위 부분은 ‘검고 희다’라고 할 때의 白자가 아니고 사람의 얼굴을 그린 것이다.(上非黑白字, 乃象人面也)”라 하였다.²⁴⁾ 이(兒)를 참고하면 白은 사람(人)의 얼굴(머리, 白)을 그린 것이 분명하고, 伯은 이로부터 孳乳된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패제후’는 ‘伯諸侯’가 本字로 쓴 것이다.

21)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全四冊), 北京: 中華書局, 1996, 1018쪽.

22) 《說文·人部》 “伯(𠂇)은 으뜸이다. 人이 뜻을 白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博陌切(백)’이다.(伯(𠂇) 長也. 從人白聲. 博陌切)”라고 하였다.

23)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全四冊), 北京: 中華書局, 1996, 1018-1026쪽 참조.

24)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全四冊), 北京: 中華書局, 1996, 1026쪽.

반면 霸는 갑골문에 1, 2번 출현하지만 무엇을 그렸는지,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알 수 없다. 《說文·月部》에 霸의 자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霸(霸)는 달이 처음 나올 때 빛이 나오는 모양이다. 큰달이면 매월 2일; 작은 달이면 매월 3일에 해당한다. 月이 뜻을 鞞²⁵⁾가 소리를 나타낸다. 《周書》에 이르길 ‘처음 달빛이 나옴’이라 하였다. 夨는 古文 霸이다.(霸(霸) 月始生, 霸然也. 承大月, 二日; 承小月, 三日. 从月鞞聲. 《周書》曰 ‘哉生霸’ 夨 古文霸.)

霸의 본의가 매월 초, ‘달이 처음 조금 나오기 시작할 때의 달빛’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갑골문에서의 자원을 고구할 수 없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月이 義符, 鞞가 聲符란 것을 감안하면 설문의 釋讀을 인정할 만하다.

徐鉉은 霸의 용법에 대해 “지금 속에서는 ‘必駕切(패)’로 읽고, 패제후(霸王)란 뜻으로 쓰고 있다. 반절은 ‘普伯切(백)’이다.(今俗作必駕切. 以爲霸王字. 普伯切.)”라고 하여, 지금 霸는 ‘우두머리’란 뜻으로 쓰고 있는데, 실은 독음은 ‘백’으로 읽어야 한다고 하여, 霸諸侯는 ‘伯(白)諸侯’가 옳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伯과 霸는 독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伯을 霸로 가차한 것이다. 伯은 上古音이 幫紐 鐸韻 陽平聲이고, 중고음은 幫紐 陌韻 入聲이며 반절은 ‘博陌切(백)’이다. 霸(霸)는 상고음이 幫紐 鐸韻 去聲이고, 중고음은 幫紐 禡韻 去聲이며 반절은 ‘必駕切(패)’²⁶⁾이다. 伯과 霸는 상고시대 동음이었다. 伯은 上古에서 중고까지 독음의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백), 霸는 상고음은 伯과 동음(백)으로 읽다가, 中古代에 ‘패’로 演變 되었다. 전적에서는 ‘霸

25) ‘鞞’은 雨와 革으로 구성된 회의자로 ‘비에 젖은 가죽’을 나타내고 독음은 ‘박’이다.

26) 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6, 24쪽, 5쪽.

王’ ‘霸諸侯’를 거의 ‘霸’로 쓰는 듯하다.

2) 某通의 경우

① 厭 壓通

盡心章句 上 “王子有其母死者 其傳爲之請數月之喪 公孫丑曰 若此者 何如也”의 註釋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陳氏曰 王子所生之母死에 厭(壓)於嫡母而不敢終喪(陳氏が 말하였다. “王子를 낳은 어머니가 죽자, 嫡母에 壓尊되어 喪期를 마칠 수가 없었다.”)²⁷⁾

성백효는 위 주석에서 ‘厭’이 ‘壓’의 통가자라고 ‘厭(壓)’로 표시를 하였다. 《說文·厂部》에 “厭은 ‘화살 통’이다. 厂이 뜻을 厭이 소리를 나타낸다. 한편으로는 ‘합하다’라고도 한다. 반절은 ‘於輒切(염)’ ‘一琰切(염)이다.²⁸⁾’ (厭, 笱也. 從厂厭聲. 一曰合也. 於輒切 一琰切)”²⁹⁾라고 하였다. 厭은 金文에는 보이지만 그 자원을 알 수 없다. 위 설문의 해석은 정확하지 않다. 우선 厭의 構件은 ‘厂 + 厭’이기 때문에 ‘화살 통’과는 상관없다. 《段玉裁注》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厭, 笱也’의 ‘笱’에 대해 “설문 竹部에 이르길 ‘笱은 꺾박하다.’라고 하였는데, 이 뜻을 요즈음 사람들은 ‘壓’으로 쓴다. 이는 厭과 壓이 古今字라는 것이다. 설문 土部에 이르길 ‘壓은 ‘땅이다’ ‘메우다’라고 하여서 ‘꺾박하다.’란 뜻은 없다.(竹部曰 笱者, 迫也. 此義 今人字作壓, 乃古今字之殊, 土部壓訓壤也, 塞也, 無笱義)³⁰⁾

27) 成百曉, 《懸吐完譯 孟子集註》, 傳統文化研究會, 2000, 405쪽.

28) 琰의 뜻과 음을 알 수 없다. ‘玦 + 又’의 結構로 보여 지나 독음을 알 수 없어 임시로 ‘염’으로 읽었다.

29) 許慎,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1963, 194쪽.

30)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448쪽.

厭의 자원은 알 수 없지만 壓과는 古今字 관계라는 단옥재의 주장은 수긍할 만하다. 厭은 典故에 ‘누르다, 눌림을 당하다’란 뜻으로 쓴 예가 보인다. ‘누르다’로 《荀子·解蔽》 “厭目而視者, 視一以爲兩.”의 楊倞 注에 “厭은 ‘누르다’를 나타낸다.(厭, 指按也.)”라고 하였고, ‘눌리다’로 《左傳·襄公三十一年》에 “기둥이 부러지고 서까래가 무너져 내려, 거처가 눌리었다.(棟折椽崩, 僑將厭焉.)”라 하였다. ‘눌러 덮다’로 《漢書·五行志下》에 “惠帝 2년 正月에 隴西지방에 지진이 일어 400가를 눌러 덮었다.(惠帝二年正月, 地震隴西, 厭四百餘家)”라고 하였다. 이렇게 厭을 壓의 뜻으로 쓰인 예가 있다하여 ‘압’으로 읽어야 하는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³¹⁾ 정리를 하자면 厭의 자원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壓과 가차관계 보다는 古今字 관계가 더 정확하다.

② 而 如通

성백효는 離婁章句 下 “文王 視民如傷 望道而(如) 未之見(文王은 백성을 보기를 다칠 듯이 여기셨으며, 道를 바라보고도 보지 못한 듯이 여기셨다.)³²⁾의 而에 대해 形音義 제시에서 ‘而 : 如通’이라 하였다. ‘如’는 《廣韻》에 ‘人諸切’ ‘人恕切’ 2개의 반절을 제시하였다.

如是 갑골문에서 𠄎로 썼는데³³⁾ 𠄎는 현재 女로 변했다. 𠄎의 𠄎는 구부리고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𠄎는 손을, 구부리고 있는 몸의 방향과 일치시켜, 다소곳이 모은 것을 그린 것이다. 이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𠄎)을 향해 공손히 순종적으로 대함을 나타내어 본의 ‘순종하다(같다)’를 나타

31) 《漢韓大字典》은 “‘싫어할 염, 빠질 압, 누를 염, 젖을 읊’ 등 4개의 독음만 표시되었다. 반절은 《집운》의 ‘乙甲切’이 소개되지 않았다. 만약 ‘乙甲切’로 읽었다면 독음 ‘압’도 가능하다. 반면 《漢韓大辭典》은 독음을 ‘염, 압, 염, 압, 읊’ 등 5개 제시하였다. 현재 중국어는 《廣韻》의 ‘於葉切’ 《集韻》의 ‘乙甲切’ 모두를 ‘yā’로 읽는다.

32) 成百曉, 《懸吐完譯 孟子集註》, 傳統文化研究會, 2000, 242쪽.

33)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全四冊), 北京: 中華書局, 1996, 492쪽.

내었다.³⁴⁾

如의 순종하다로 漢 班固의 《白虎通·嫁娶》에 “여자란 ‘如’와 같은 뜻이다. 다른 사람을 순종한다는 것이다.(女者, 如也, 從如人也)”라고 하였다. 如는 而와 같은 承接關係를 나타내는 連詞로도 쓰인다. 《詩·小雅·車攻》 “不失其馳, 舍矢如破.(말을 타고 내달림에 법도가 있었네)”의 王引之의 《經傳釋詞》(卷七)에 “如破는 ‘而破’이다.(如破, 而破也.)”라고 하였고, 《韓非子·五蠹》에 “백성들의 계책은 모두 편안히 살고 위험과 곤궁함을 피하는 것이다.(民之故計, 皆就安利如辟危窮.)”라고 하였다.

而는 《廣韻》에 반절이 ‘如之切’이라 하였다. 而는 갑골문에서 수염이 아래로 늘어진 ‘𠂔 𠂔’로 그려 본의 ‘수염’을 나타내었다. 須(鬚)의 初文이다.³⁵⁾ 갑골문에서의 용법은 대부분 제사 이름을 나타내었다. 《周禮·考工記·梓人》 “凡攬網援噬之類必深其爪, 出其目, 作其鱗之而.”의 戴震 補注에 “뺨의 옆에서 위로 뺨친 털을 之라 하고,³⁶⁾ 아래로 늘어진 것을 而라 하는데 모두 수염 종류이다.(頰側上出者曰之, 下垂者曰而, 鬚鬣屬也.)”라고 하였다.

而는 如와 같이 ‘만약~면’이란 용법이 있다. 《詩·小雅·都人士》 “彼都人士, 垂帶而厲; 彼君子, 卷髮如蠶.”의 鄭玄 箋에 “而는 또한 如와 같다.(而, 亦如也.)”라 하였고, 《荀子·仲尼》 “財利至, 則言善而不及也.”의 楊倞 注에 “而는 如와 같다.(而, 如也.)”라 하였다. 而는 如나 又처럼 連詞로

34) 如는 갑골문에서 訊과 거의 자형차이가 없다. 訊은 ‘𠂔 𠂔 𠂔’ 등으로 썼는데, 𠂔는 晩期에 나온 자형이다. 𠂔는 ‘𠂔 𠂔’에 비해 심문을 당하는 자를 묶었음을 표시하는 扌가 첨가 되었다. 𠂔는 손을 뒤로 하고 끈으로 묶여 있는 사람을, 𠂔는 심문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구부리고 앉아 있는 사람(𠂔)과 손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했느냐가 訊과 如를 판정하는 주요 구분이 된다. 구부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 몸과 손 모두, 말을 하고 있는 사람(𠂔)을 향하고 있으면 如(𠂔)이고, 둘 중 하나라도 말을 하고 있는 사람(𠂔)의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訊이다.

35)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全四冊), 北京: 中華書局, 1996, 3443쪽.

36) 之가 “뺨의 옆에서 위로 뺨친 털”을 가리킨다고 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쓰여 병렬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如처럼 가설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而是 상고음이 之韻 日紐 陽平聲이고 중고음은 之韻 日紐 平聲이며 반절은 ‘如之切’이다. 如是 상고음이 魚韻 日紐 陽平聲이고 중고음은 魚韻 日紐 平聲이며 반절은 入諸切로,³⁷⁾ 而와 如是 雙聲 旁轉의 近音으로 통가 가능하다. 如와 而是 본의나 인신의에서 서로 관련이 없다. 이들이 통가되는 것은 단순히 독음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상 성백효가 제시한 某同과 某通은 이체자 관계인지, 통가(가차)관계인지 한어문자학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3. 《懸吐完譯 孟子集註》의 義項 적용과 해석

1) 又의 義項 적용

公孫丑章句 “孟施舍之守氣 又不如曾子之守約也”를 성백효는 “孟施舍의 지킴은 氣이니, 또 曾子의 지킴이 요약함만 못하다.”³⁸⁾고 해석하였다. ‘又’를 대표훈 ‘또’로 해석 하였다. 사소한 것이지만 전체 문장과 어울리지 않는다.

위 經文 ‘又’는 ‘또’ 보다는 ‘더욱,’ ‘오히려’ 혹은 ‘특히’가 더 문의에 합당하다. ‘더욱’으로 《墨子·非攻中》에 “다른 사람의 개, 돼지, 닭을 훔치는 그 의롭지 못함이 다른 사람의 동산에 들어가 복숭아 오야를 훔친 사람보다 더 심하다.(至攘人犬豕雞豚者, 其不義, 又甚入人園圃竊桃李.)”라 하여, ‘又’를 ‘더’로 써서 의미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고 있다. 尤의 통가로 ‘특히’로 해석할 수도 있다. 《史記·樗里子甘茂列傳論》에 “바야흐로 진나라가 강할 때 천하는 특히 모사와 속임수가 난무하였다.(方秦之強時, 天下尤趨謀詐哉.)”라 하였고, 宋 歐陽修의 《醉翁亭記》에 “그 서남쪽 여러 봉우리들의 숲과 골짜기들은 특히 아름답다.(其西南諸峰, 林壑

37) 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6, 62쪽, 100쪽.

38) 成百曉, 《懸吐完譯 孟子集註》, 傳統文化研究會, 2000, 85쪽.

尤美.)”라 하였다.

又是 猶의 통가로 ‘오히려’로 해석하는 것이 ‘또’ 보다는 나아 보인다. 唐 韓愈의 〈祭十二郎文〉에 “당신들은 오히려 젊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汝時尤小, 當不復記憶.)”라 하였다. 有의 통가로 ‘아마’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史記·孟嘗君列傳》 “今秦, 虎狼之國也, 而君欲往, 如有不得還, 君得無爲土禹人所笑乎?”의 王念孫의 《讀書雜志·史記四》에 “如有는 아마(或)와 같다. ……或과 有는 옛날 同聲으로 通用하였다.(如有, 如或也……或與有古同聲而通用.)”라 하였다.³⁹⁾

2) 縮(直)의 義項 적용

公孫丑章句 上 “自反而縮 雖千萬人 吾往矣(스스로 돌아켜서 정직하다면 비록 천만 명이 있더라도 내가 가서 대적할 수 있다.)”의 주석 “縮 直也 檀弓曰 古者 冠縮縫 今也衡(橫)縫 又曰 棺束 縮二衡三”에 대해, 성백효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縮은 곧음이니, 〈檀弓〉에 이르기를 ‘옛적에는 冠을 곧게 꿰매더니, 지금은 가로로 꿰맨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棺의 묶음은 곧은 것이 들어오, 가로가 셋이다.’ 하였다.⁴⁰⁾

‘縮 直也’를 ‘縮은 곧음이니’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없다. 하지만 ‘棺束 縮二衡三’의 ‘縮’을 앞에서 直이라고 釋讀했다 하여 똑같이 ‘곧음’이라 해석하는 것은 義項의 습관적 대입이다. 위 경문에서의 縮은 곧다(정직하다)가 옳다. 하지만 ‘棺束 縮二衡三’의 縮은 ‘세로’로 해석해야 한다.⁴¹⁾ 《禮

39) 有는 上古音이 之韻, 匣紐이고 或은 上古音이 職韻, 匣紐로 雙聲 對轉의 近音이다.

40) 成百曉, 《懸吐完譯 孟子集註》, 傳統文化研究會, 2000, 84-85쪽.

41) 縮과 直은 상고음이 근음이었기 때문에 가차 가능하다. 縮은 상고음이 覺韻 山紐 陰平聲이고, 중고음이 屋韻 山紐 入聲이며 반절은 所六切이다(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6, 33쪽). 直은 상고음이 職韻

記·檀弓》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天子之棺四重, 水兕革棺被之, 其厚三寸, 槨棺一 梓棺二, 四者皆周. 棺束縮二衡三, 衽, 每束一, 柏槨以端, 長六尺.(천자의 棺은 4중으로 만든다. 水牛와 兕牛의 가죽으로 棺을 감싸는데 각각 그 두께를 3촌으로 한다. 椁木으로 만든 관 1개, 梓木으로 만든 관 2개로 도합 4개를 모두 포개어 넣는다. 棺을 묶을 때는 세로로 2줄, 가로로 3줄로 묶는다. 棺과 棺을 合棺할 때 마다 나무 쟁기 1개씩을 쓴다. 측백나무로 槨을 만들되 세로 길이 6척 가로 길이 1척으로 만든다.)⁴²⁾

천자의 棺은 4중으로 만드는데, 水牛와 兕牛의 가죽으로 棺을 감싼 것이 한 겹이고, 槨棺이 한 겹(한 개)이며, 梓棺은 2개 즉, 屬棺과 大棺으로 두 겹이 되어 모두 4겹으로 棺을 만든다는 것이다. 실제의 관은 3겹인데, 관이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시체를 직접 담는 관은 물소, 코뿔소 가죽으로 6촌의 두께로 감싸고 옷 칠을 하여서 방습을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천자가 즉위하자마자 물소 가죽으로 관을 만들기 시작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옷 칠을 하여 완벽한 방습의 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관은, 관을 만드는 법과 관과 관을 겹쳐 넣는 법이 각각 다르다. 위 주석에서 인용한 ‘棺束 縮二衡三’은 관 하나를 묶는데 세로는 두 줄, 가로는 세 줄로 묶는다는 것이다. 위 《禮記·檀弓》의 孔穎達 疏에 “棺束이란 옛날 관에 못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죽으로 관을 묶었다.(棺束者, 古棺木無釘, 故用皮束合之.)”라고 하였다. 이는 관 하나하나를 가로와 세로로 묶었는데, 이유는 관은 못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목과 관목이 합치되는 곳을 저미어 꿰맞춤 식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끈으로 가로세로 각각 2줄 3줄로 묶는다는 것

定紐 陽平聲이고, 중고음은 職韻 澄紐 入聲이며 반질은 除力切로(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6, 49쪽.) 두 글자는 旁轉 隣紐의 近音이다.

42) 阮元 校刻, 《十三經注疏》, 中華書局, 1980, 1293쪽.

이다.

위 《禮記·檀弓》은 관(관) 속에 관을 겹쳐놓을 때 사용하는 방법을 衽 이라고 하였다. 衽은 ‘小要’라고도 하는데 孔穎達 疏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衽은 小要이다. 小要의 형체는 양쪽 머리 부분은 넓고 가운데는 좁다. 관은 못을 사용하지 않는다. 단, 못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관의 가장자리 및 양쪽 머리 부분 봉합되는 곳을 저미어 놓았다가 小要를 끼워서 접합을 시킨다. 이는 관으로 하여금 단단하게 하고 아울러 관과 관이 서로 잘 어울려 있게 한다. ……漢나라 때 衽을 小要라고 불렀다.(衽, 小要也. 其形, 兩頭廣, 中央小也. 既不用釘棺, 但先鑿棺邊及兩頭合際處作坎形, 則以小要連之, 令固棺并相對……漢時, 呼衽爲小要也.)

‘衽, 每束一’의 衽은 한나라 때부터 ‘小要’라고 불렀는데, 이는 관 제작과 관계된 것이 아니고 겹으로 놓는 관을 고정시키는 방법을 가리킨다. 관마다 가장자리 및 양쪽 머리 부분을 저미어 놓았다가 이 부분에 小要를 끼워서 고정시키는 것이다. 즉, 小要是 관과 관을 연결하는 쇠기 같은 것을 가리킨다.

본래 縮의 본의는 ‘뽁뽁 묶는 것’이다. 묶음으로부터 ‘줄다’란 인신의가 나왔다. 《孟子·公孫丑上》 “自反而不縮”의 縮은 ‘곧다(정직)’로 쓰였다. 하지만 註釋에서 인용한 《禮記·檀弓上》 “古者冠縮縫, 今也衡縫.”⁴³⁾의 縮은 세로 혹은 ‘대지르다’란 뜻으로 쓰였다. 《孟子·公孫丑上》 “自反而不縮”의 楊伯峻 注에 “예기 단궁은 ‘縮’을 ‘衡’의 상대로 가로 세로라고 할 때의 ‘直(세로)’으로 썼다; 하지만 이곳 맹자 본문에서는 ‘曲直’의 ‘直(곧다(정직하다))’으로 썼다.(檀弓以縮‘衡’對言, 爲‘橫直’之‘直’; 此則爲‘曲直’之‘直.’)”라고 하였다.

사실 위 맹자 경문에 대한 주자의 주석은 애초 적당한 인용이 되지 못

43) 鄭玄 注에 “縮은 세로를 나타낸다.(縮, 縱也.)”라 하였다.

한다. 《禮記·檀弓》의 ‘冠縮縫’의 ‘縮’과 또 다른 《禮記·檀弓》의 ‘棺束縮二衡三’의 ‘縮’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데도, 동일한 용법으로 인용하였다. 전자는 冠을 만드는 방법으로 ‘세로’ 혹은 ‘곧게’ 꿰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후자는 세로로 쓰였다. 성백효는 일부 주석서가 冠縮縫의 ‘縮’을 ‘直’으로 주석하였다하여, ‘棺束 縮二衡三’의 ‘縮’도 ‘곧다’로 해석하였다. 이곳의 ‘縮’은 관을 ‘세로로 묶는다.’는 뜻이다. 《儀禮·公食大夫禮》에 “魚七, 縮俎寢右.”의 賈公彥 疏에 “縮은 세로란 뜻이다. 물고기를 세로로 진설한다는 것이다.(縮, 縱也. 魚在俎爲縱.)”라 하였다.

3) 甚의 讀音 문제

《맹자》서설의 “或曰 英氣見於甚處(혹자가 묻기를 ‘英氣가 어느 곳에 나타납니까?’라고 하였다.)”의 甚에 대해 성백효는 본문에서 ‘甚’을 ‘삼’으로 읽고, 한자의 독음 표시난에도 ‘甚: 무엇 삼, 심할 심.’이라 하였다. 하지만 甚을 ‘삼’으로 읽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⁴⁴⁾ 우리나라 중국의 좀 크다는 자전인 《漢韓大辭典》, 《漢韓大字典》, 《漢字古今音表》, 《漢語大詞典》, 《漢語大字典》⁴⁵⁾은 모두 ‘(무엇)심’으로 읽었다. ‘甚’을 ‘삼’으로 읽은 것은 중국어 ‘什麼’와 연동된 것이다. 중국어는 文言의 何를 ‘什麼’라고 한다. 甚은 예전부터 이미 무엇(何), 어째서(怎, 怎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44) 《說文·甘部》에 “甚(畚)은 매우 편안히 여기는 것이다. 甘과 짝을 나타내는 匹로 이루어졌다. 반절은 ‘常枕切(심)’이다. 𠄎은 古文 甚자이다.(甚(畚), 尤安樂也. 从甘 从匹耦也. 常枕切. 𠄎 古文甚)”라고 하였다. 甚은 갑골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자원은 알 수 없다. 甚은 전고에 過分하다, 엄중하다, 왕성하다, 매우, 심후하다, 많다, 중요하다, 책임지다, 확실히 등으로 쓰인 용례는 보이지만 ‘매우 안락하다.’란 뜻으로 쓰인 용례는 볼 수 없다.

4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漢韓大辭典》(전16권), 단국대학교출판부, 2006, 9책, 725쪽. 李珍華·周長楫, 《漢字古今音表》, 北京: 中華書局, 1993, 432, 434쪽. 民衆書林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2010, 1453쪽. 漢語大字典編纂委員會, 《漢語大字典》, 四川辭書出版社 湖北辭書出版社, 1993, 11쪽.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編纂處,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86, 제1책 572쪽 참조.

는 甚과 怎, 什의 독음이 같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통가된 것이다. 宋 姜夔의 《齊樂天·蟋蟀》에 “첩첩 둘러쳐진 산 차가운 밤 홀로 무슨 맘일까? (曲曲屏山, 夜涼獨自甚情緒)”라 하였다.

위 甚은 중국어 ‘什么, 怎么(爲什么)’의 뜻으로 쓰였다. 당연히 이들은 甚의 본의나 引伸義와 상관없는 독음이 유사하여 통가된 것이다. 현대 중국어 什么은 당나라 때 이미 ‘甚麼’로 썼다. 唐 呂岩의 시《贈江州太平觀道士》에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동료들의 놀림에 맡겼다.(不知甚麼漢, 一任輩流嗤).”라 하였다. 什麼는 ‘什末’로 쓰기도 한다. ‘甚麼’의 이체이다. 什麼(什末), 甚麼는 의문대명사이다.

什은 上古音이 緝韻 禪紐 陽平聲이고 中古音이 緝韻 禪紐 入聲이며 반절은 ‘是執切(십)’이다.⁴⁶⁾ 甚은 상고음이 侵韻 禪紐이고, 중고음은 寢韻 禪紐 上聲 반절은 ‘常枕切’이며, 근대음은 侵尋韻 審紐로⁴⁷⁾ 什과 甚은 雙聲 對轉의 近音이었다. 怎은 상고와 중고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글자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韻書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近代音은 侵尋韻 精紐 上聲⁴⁸⁾으로 甚의 근대음과 疊韻 旁紐와 근음이다. 《五音集韻》은 독음이 ‘子昨切(주)’라 하였고, 《正字通·心部》는 “如何와 같고, 정자와 주자의 어록에 자주 썼다.”고 하였다.

甚은 廣韻, 集韻, 韻會, 正韻의 반절에 모두 ‘時鴉切(廣韻 上聲에 ‘常枕切’도 있음)’이기 때문에 독음의 분화가 비교적 안정적이라 할 수 있어 ‘삼’으로 읽은 근거를 찾기 어렵다.

IV. 結語

한국 한문학계는 현재도 한어문자학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漢

46) 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6, 56쪽.

47) 李珍華·周長楫, 《漢字古今音表》, 北京: 中華書局, 1993, 432쪽.

48) 李珍華·周長楫, 《漢字古今音表》, 北京: 中華書局, 1993, 431쪽.

語文字學的 수용 없이 진행된 전적의 해석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中國字典은 의항을 표시할 때 異體字는 ‘某同’으로 通假字는 ‘通謀’로 표시한다. 성백효의 《懸吐完譯 孟子集註》에도 ‘某同’과 ‘某通’이 출현 하는데 異體字와 通假字를 표시하지는 않는 것 같다. 현재로서는 成百曉가 어떤 의도로 이들을 ‘某同’과 ‘某通’으로 분리했는지 알 수 없다.

사전과 한어문자학, 한어문자학과 해석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전적의 해석은 사전의 의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語境에 따라 隨文釋義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隨文釋義에 의해 도출된 意義는 사전이나 번역서 등에 그대로 실어서는 안 된다. 또, 해석에 습관적으로 대표훈을 적용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懸吐完譯 孟子集註》는 문장 해석에 무의식적으로 ‘대표훈’을 적용한 곳이 보인다. ‘又’의 경우 ‘더욱’이 합당한데 ‘또’로, 縮(直)의 경우 ‘세로’가 적당한데 ‘곧다’로 해석하였다. 甚의 ‘무엇’이란 의항에 대해 讀音을 ‘삼’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가차자 ‘什么’의 ‘什 怎么(爲什么)’ ‘怎’에 이끌린 것이다. 什과 甚은 雙聲 對轉의 근음으로 통가 가능하다.

성백효의 《懸吐完譯 孟子集註》에 대한 한어문자학적 검토는 오류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한문학계에 한어문자학에 대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 References >

1. Dankook University Oriental Studies. *Chinese-Korean Dictionary*. Dankook University Press, 2006.
2. Duan Yucai. *Shuowen Jiezhushu*. Shanghai guji Press, 1988.
3. Guo Xiliang. *Hanzi guyin shouce*. Beijing: Peking University Press, 1986.
4. Hanyu Dacidian Bianzuan Weiyuanhui. *Hanyu Dacidian*. Shanghai:

- Chinese Dictionary Press, 1986.
5. Hanyu Dazidian Dianzuan Weiyuanhui. *Hanyu Dazidian*. Sichuan Dictionary Press & Hubei Dictionary Press, 1993.
 6. Huang Linggeng, Zhang Jiding. *Xunguxue yu Yuwenjiaoxue*. Zhejiang Guji Press, 1998.
 7. Li Zhenhua, Zhou Zhangji. *Hanzi Gujin Yinbiao*. Beijing: Zhonghua Book Company, 1993.
 8. Minjungseelym the editorial department. *the Great Chinese-Korean Dictionary*. Minjungseelym Press, 2010.
 9. Ruan Yuan. *Shisanjing Zhushu*, Beijing: Zhonghua Book Company, 1980.
 10. Seng Baekhyo, *the interpretation of Mengzijizhu*. Jeontong Munhua yeonguhoi, 2000.
 11. Wu Xingwu, *Jiagu Wenzhi Gulin*, Beijing: Zhonghua Book Company, 1996.
 12. Xu shen, *Shuowenjiezi*, Beijing: Zhonghua Book Company, 1963.

< 참고문헌 >

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漢韓大辭典》(전16권), 단국대학교출판부, 2006.
2.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3. 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6.
4.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編纂處,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86.
5. 漢語大字典編纂委員會, 《漢語大字典》, 四川辭書出版社 湖北辭書出版社, 1993.

6. 黃靈庚·張繼定, 《訓詁學與語文教學》, 浙江古籍出版社, 1998.
7. 李珍華·周長楫, 《漢字古今音表》, 北京: 中華書局, 1993.
8. 民衆書林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2010.
9. 阮元 校刻, 《十三經注疏》, 中華書局, 1980.
10. 成百曉, 《懸吐完譯 孟子集註》, 傳統文化研究會, 2000.
11. 許慎,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1963.
12.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全四冊), 北京: 中華書局, 1996.

< Abstract >

Interpreting a Gyeongjeon(經典) needs a application of Haneomunjahak(漢語文字學). when interpreting a Gyeongjeon(經典), you should consider how to applicate Uihang(義項) which is presented on dictionary of classical Chinese. 《Hyeontowanyeok Maengjajipju(懸吐完譯 孟子集註)》 interpreted ‘Woo’(又) as ‘again’, ‘Chuk’(縮) as ‘straight’. However, They are more appropriate to be interpreted as ‘more’, ‘vertical’ each.

Jajeon(字典) of China(中國) states Icheja(異體字) as Dongmo(同某), Tonggaja(通假字) as ‘Tongmo(通謀).’ ‘Dongmo(同某) and ‘Tongmo(通謀)’ are also shown in 《Hyeontowanyeok Maengjajipju(懸吐完譯 孟子集註)》 by Baek Seonghyo(百成曉), but he didn’t seem to present Icheja(異體字) and Tonggaja(通假字).

As of now, there is no way to know a standard that separated ‘Dong mo(同某)’ and ‘通ongmo(通謀).’ 《Hyeontowanyeok Maengjajipju(懸吐完譯 孟子集註)》 presented Dogeum(讀音) of sim(甚) as ‘hemp’, but the right meaning was ‘심(sim).’ You should Gacha(假借) because it represents ‘sib(什)’ of ‘Sibyو(什么)’ and ‘Jeum(怎)’ of ‘Jeumyo(Wisibyو) 怎么(爲什么),’ sib(什) and sim(甚) are Geuneum(近音) of Ssangseong(雙聲) Daejeon

(對轉).

A haneomunjahak(漢語文字學的) review of 《Hyeontowanyeok Maengjajipju (懸吐完譯 孟子集註)》 is for the attention of haneomunjahak(漢語文字學的) in chinese academic world, not for criticism of misinterpretation.

Key Words : Jajeon(字典), Icheja(異體字), Tonggaja(通假字), Baek(Pae. 伯(霸)), Woo(又), Chuk(縮).